



## 글자 배열 순서

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사전에 수록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. **ㄱ** 를 예로 적었으나 다른 글자들도 그 순서를 따라서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면 된다.

ㄱㅇ ㄱㅏ ㄱ ㄱㅓ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 ㄱㅑ ㄱㅓ ㄱㅕ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  
ㄱㅑ ㄱㅓ ㄱㅕ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 ㄱㅑ ㄱㅓ ㄱㅕ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  
ㄱㅑ ㄱㅓ ㄱㅕ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 ㄱㅑ ㄱㅓ ㄱㅕ ㄱㅗ ㄱㅛ ㄱㅜ ㄱㅠ ㄱㅡ ㄱㅣ

싱할러어 모음과 자음에 대한 음가와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.

### 1. 모음 쌍모음 쌍모음

ㅏ 아 ㅓ 아- ㅗ 애 ㅛ 애- ㅜ 이 ㅠ 이- ㅡ 우 ㅣ 우-  
ㅑ 리 / ㅓ 리-

ㅑ 리(Li) ㅓ 리-(Li-) ㅕ 에 ㅓ 에- ㅗ 아이 ㅑ 오 ㅓ 오-  
ㅑ 아우 ㅇ 응 :

1) ㅏ 는 '아얀너 아', ㅓ 는 '아-얀너 아-', ㅗ 는 '애얀너 애' 라고 읽는다.

2) 장음이 있다. 장음 (ㅓ, ㅗ, ㅑ, ㅓ, ㅑ, ㅓ, ㅑ) 은 길게 발음한다.

예) ㅓㅑㅓ [아-거머] 종교, ㅗㅑㅓ [애-따] 먼, ㅑㅓㅑ [이-에-] 어 제

3) 썩할러어의 모음은 독자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, 자음과 합쳐져 글자를 만들 때, 모음 글자 형태가 변한다. 이 모음들은 자음과 함께 나오며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는다(이 부호들을  $\text{ᄃᆞᆫ}$  벨람 이라고 부른다).

①  $\text{ᄃᆞ}$  (아-: 엘러벨러  $\text{ᄃᆞᆫ}$ )

‘ $\text{ᄃᆞ}$  아-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장음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. ‘아-’로 발음되며, 글자 오른쪽에 붙는다. 예)  $\text{ᄃᆞᆫ}$  [까-머  $\text{ᄃᆞ}$ ] 방

②  $\text{ᄃᆞᆫ}$  (애: 꼬터 애더여  $\text{ᄃᆞᆫ}$  혹은  $\text{ᄃᆞᆫ}$   $\text{ᄃᆞᆫ}$  애더 엘러벨러) ‘ $\text{ᄃᆞᆫ}$  애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‘애’로 발음되며, 글자 오른쪽에 붙는다. 입술을 찢는 발음으로 영어의 [ae] 발음에 속한다. 예)  $\text{ᄃᆞᆫ}$  [벨러] 모목

③  $\text{ᄃᆞᆫ}$  (애-: 디거 애더여  $\text{ᄃᆞᆫ}$ )

‘ $\text{ᄃᆞᆫ}$  애-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 $\text{ᆞ}$  의 장음 발음이다. ‘애-’로 발음되며, 글자 오른쪽에 붙는다.

예)  $\text{ᄃᆞᆫ}$  [깨-머] 음식

④  $\text{ᄃᆞᆫ}$  (이: 이쓰벨러  $\text{ᄃᆞᆫ}$ )

‘ $\text{ᄃᆞᆫ}$  이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‘이’로 발음되며, 글자 위에 붙는다. 자음에 ‘이’ 발음을 더한다.

예)  $\text{ᄃᆞᆫ}$  [빠  $\text{ᄃᆞᆫ}$ 미야-] 남자

⑤  $\text{ᄃᆞᆫ}$  (이-: 디구 이쓰벨러  $\text{ᄃᆞᆫ}$ )

‘ $\text{ᄃᆞᆫ}$  이-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 $\text{ᆞ}$  의 장음이다. 예)  $\text{ᄃᆞᆫ}$  [폴리-] 샷

⑥  $\text{ᄃᆞᆫ}$  또는  $\text{ᄃᆞᆫ}$  (우: 빠-벨러  $\text{ᄃᆞᆫ}$ )

‘ᄒ’ 우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‘우’로 발음되며, 글자 밑에 붙는다. 두가지 기호형태가 있으며, 자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붙는지 결정된다. ‘5) 와 6)’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.

예) ከቋረ [나뿌-ᄒ] 나쁜, ካህጻን [뚜와-ᄒ] 수건

⑦ ᄒ 또는 ᄒ (우-: 디구 ᄒ-ᄒᄒ ᄒᄒ ᄒᄒᄒ)

‘ᄒ’ 우-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ᄒ 또는 ᄒ 의 장음이다. ‘우-’로 발음되며, 글자 밑에 붙는다. 단음과 같이 두가지 기호 형태가 있으며, ᄒ 또는 ᄒ 가 붙는 자음과 똑 같은 자음에 붙는다. 장음은 단음의 ᄒ 보다 더 긴 형태 ᄒ 이고, ᄒ 에서는 끝이 물결모양 ᄒ 으로 된다.

예) ከᄒᄒ [부-미ᄒ] 땅, ከቋህ [뿌-자-ᄒ] 희생

⑧ ᄒᄒ (에 ᄒ: ᄒᄒᄒᄒ ከᄒᄒᄒ)

‘ᄒ’ 에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‘에’로 발음되며, 글자 왼편에 붙는다. 자음 ᄒ (마얀너)와 혼동되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. 예) ከᄒᄒᄒ [게ᄒᄒ] 집

⑨ ᄒ ᄒ 또는 ᄒ ᄒ (에-)

‘ᄒ’ 에-’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ᄒ의 장음이다. ‘에-’로 발음되며, 글자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글자 왼편에, 다른 하나는 글자 위에 붙는다. 두 모음이 앞뒤로 나와 장음을 만드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. 뒤에 붙는 ‘ᄒ’ 또는 ‘ᄒ’ 는 ‘할 끼ᄒ-ᄒ ከᄒ ከᄒᄒ’ 라고 부르며 받침을 만드는데 사용한다. 자세한 것은 ‘⑭’에 설명되어 있다.

예) ከᄒᄒ [ᄒᄒ-] 케익, ከᄒᄒᄒ [ᄒᄒ-라-ᄒ] 시간

⑩ ᄒᄒᄒ (아이: ᄒᄒᄒ ᄒᄒᄒ ከᄒᄒᄒ ᄒᄒᄒ)

'ㅅ아이'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'아이'로 발음된다. 글자 오른쪽에 'ㅅ' 받침이 두개 붙는다.

예) **ᄃᄆᄇᄈᄉ** [와일디여워 리야-] 의사

⑪ **ᄃᄆ** (오)

'ᄃ' 오'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'오'로 발음된다. 글자 왼쪽에 'ㅅ' 받침이 붙고, 오른쪽에 'ᄆ' 앨러벨러가 붙어 '오'를 만든다. 예) **ᄃᄆᄇᄈᄉ** [뽕호 리] 거름

⑫ **ᄃᄆᄇ** (오- ㅅ)

'ᄃ' 오-'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'ᄃᄆᄇ 오'의 장음이다. '오'와 같은 방식을 취하며 'ᄆ(앨러벨러)'에 'ᄇ' (할끼리-머 **ᄃᄆᄇ**)가 붙어 장음이 된다.

예) **ᄃᄆᄇᄈᄉ** [골-리야-] 제자

⑬ **ᄃᄆᄇᄈ** (아우)

'ᄃᄆᄇ' 아우'가 자음과 결합될 때 바뀌는 모음기호로, '아우'로 발음된다. 글자 왼쪽에 'ㅅ' (받침 **ᄃᄆᄇᄈᄉ**), 글자 오른쪽에 'ᄈ' (가여누 **ᄃᄆᄇᄈᄉ**)가 붙는다.

예) **ᄃᄆᄇᄈᄉ** [가우 리워여] 영광

⑭ **ᄃᄆᄇᄈᄉ** 또는 **ᄃᄆᄇᄈᄉ** (받침: 할끼리-머 **ᄃᄆᄇᄈᄉ**)

둘 다 'ᄃᄆᄇᄈᄉ 할끼리-머' 라고 부르지만 각자의 이름이 있다. **ᄃᄆᄇᄈᄉ** 는 'ᄃᄆᄇᄈᄉ ᄃᄆᄇᄈᄉ' 라고 부르고 **ᄃᄆᄇᄈᄉ** 는 'ᄃᄆᄇᄈᄉ 리해너' 라고 부른다. 알파벳 모음에는 없지만,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, 다른 글자들과 어울려 장음 표시를 하는데 사용된다. 'ᄃᄆᄇᄈᄉ (ᄃᄆᄇᄈᄉ ᄃᄆᄇᄈᄉ)'는 글자 위쪽 끝에 붙고, **ᄃᄆᄇᄈᄉ** (ᄃᄆᄇᄈᄉ 리해너)는 글자 위에 붙는다.





1) 장음인 자음이 있다(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, ㅈ, ㅊ, ㅋ )

2) 자음을 읽을 때 ㅁ 는 '까얀너 까', ㅂ 는 '까-얀너 까-', ㅅ 는 '가얀너 가' 라고 읽는다.

3) 자음 알파벳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 - 자음의 첫 다섯 글자를 아래와 같이 암기한다.

**(까꺼-가거-너, 차쳐-자저-너, 타터-다더-너, 따떠-다더-너, 뽀뽀-바버-머, 야 클러워, 샨샤싸할러)**

4) 영어에서와 같이 'ㅍ (Pa)와 ㅑ (Fa)' 그리고 'ㄹ(Ra) 와 ㄴ (La)'를 잘 익혀야 한다.

예) ㅍㅑㅑㅑ [뽀뽀여] 반, ㅑㅑㅑㅑ [파(f)-머씨] 약국, ㄹㅑ [라터] 나라, ㄴㅑㅑㅑ [라꾸너] 점수

5) 한글과 영어에도 없는 'ㄷ' 와 'ㄸ' 발음은 특별히 씩할러어에서 중요하다. 두개 다 윗니 끝을 짧게 치며, 끊어 발음하면서 영어의 'R' 과 같이 굴려야 한다. 한글에서 발음하듯이 '더' 와 '터' 로 그냥 발음하면, 둘 다 거의 'ㄸ' 발음으로 발음되어 진다. 발음을 굴리지 않고, 잘못할 경우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.

예) ㄸㄸ [다더] 가려움, ㄸㅑ [다더] 벌금, ㅑㅑ [마터] 나에게, ㅑㅑ [마떠] ~위에

6) 'ㄸ' 다' 는 한국의 'ㄷ'으로 표기하지만, 한국의 'ㄷ'발음은 영어의 'ㄸ(th)' 발음을 낸다. 따라서, 한글의 'ㄷ'을 짧게 끊어서 내면 이 소리가 난다.

예) ㄸㄸ [다더] 장작, ㄸㄸ [아더] 오늘

7) 'ㄴ 나'는 'ㄴᄇᄇ 무-르더저 나안너', 'ㄷ 라'는 'ㄴᄇᄇ 무-르더저 라안너' 라고 읽는다. 'ㄴ 나 와 ㄷ 라'는 종종 'ㄴ 나 와 ㄷ 라'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.

8) 'ㄴ 샐'는 'ㄴᄇᄇ 딸-루저 샐안너', 'ㄷ 샐'는 'ㄴᄇᄇ 무-르더저 샐안너'라고 읽는다. 발음 상 차이가 거의 없지만, 'ㄷ 샐'가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단어의 첫 글자로 나오지 않는다. 'ㄴ 샐'는 'ㄷ 샐'로도 많이 대치되어서 사용되어 진다.

9) 폐쇄음과 파찰음

① ㅸ 'ㅸ'는 후음(목에서 소리가 나는)이 아닌 입술 폐쇄음이다. 우리말의 "ㅸ" 와 비슷하다.

예) ㅸᄇᄇ [ㅸ나-워] 빛, ㅸᄇ [ㅸ하] 다섯

② ㅹ 'ㅹ'는 후음의 입술 폐쇄음이다. 우리말의 'ㅹ'을 약하게 입술을 오무렸다 열면 이 음이 나온다. 영어의 'b'와 거의 비슷하다. 한글의 'ㅹ'을 발음하면 'ㅸ' 소리가 나므로 발음에 주의해야 한다. 예) ㅹᄇᄇ [발라-] 개

③ ㅺ 'ㅺ'는 후음이 아닌 치음 폐쇄음이다. 우리말의 'ㅺ'가 비슷하다. 영어의 'th'발음이지만, 마찰음이 없어야 한다.

예) ㅺᄇᄇ [따ᄇ] 별

④ ㅻ 'ㅻ'는 후음의 치음 폐쇄음이다. 'ㅻ'을 짧게 끊어서 내면 이 소리가 난다. 한글의 'ㅻ' 발음은 'ㅺ' 소리를 내므로 약하게 발음해야 한다.

예) ㅻᄇᄇ [다하여] 십, ㅻᄇ [다떠] 이빨

⑤ ㅼ 'ㅼ'는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짧게 굴리는 폐쇄음이다. 살짝 굴려야 한다. 씩할러에만 있고, 영어와 한글에 없는 발음이므로,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. 자음 5) 번을 읽어 발음을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.

예) ㅼᄇᄇ [까터] 입

⑥ ㄷ 'ㄷ'는 목에서 소리를 내며 짧게 굴리는 폐쇄음이다.  
 ㄹ 와 같이 굴려서 발음한다. 이 자음 또한 씩할러 발음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구별하는 발음 중 하나 이므로, 철저하게 연습해야 한다. 예) ㄷᄇᄂ [까ㄷ여] 가게

⑦ ㅈ '차'는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구개(입천장)음인 파찰음이다. 한글의 'ㅈ'과 비슷하다.

예) ㅈᄇᄂᄂ [와처너여] 단어, 말씀

⑧ ㅊ '차'는 목에서 소리 내는 구개음인 파찰음이다. 한글의 '자'로 음역하지만, 한글의 'ㅈ'은 'ㅈ'소리도 난다. 따라서 약하게 발음해야 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.

예) ㅊᄇᄂᄂ [잠부] 잠부열매, ㅊᄇᄂ [잘러여] 물

⑨ ㅋ '까'는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연구개 폐쇄음이다. 한글의 '까'와 비슷하다.

예) ㅋᄇᄂᄂ [까뿌타-] 까마귀, ㅋᄇᄂ [갈루] 검은

⑩ ㄱ '가'는 목에서 소리 내는 연구개 폐쇄음이다.

예) ㄱᄇᄂ [가씨] 나무, ㄱᄇᄂ [갈러] 돌

10) 약간 비음이 섞인 후음인(목에서 나는) 폐쇄음 네 개의 후음 폐쇄음에서 나온 자음들이다.

① ㅁ '음바'는 목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 폐쇄음이다.

예) ㅁᄇᄂ [암버] 망고

② ㄴ '은다'는 목에서 소리가 나는 치음 폐쇄음이다.

예) ㄴᄇᄂ [한더] 달

③ ㄹ '은ㄷ'는 목에서 소리가 나는 굴리는 폐쇄음이다.

예) ㄹᄇᄂ [흔ㄷ] 코끼리코

④ ㄷ '응가'는 목에서 소리가 나는 연구개 폐쇄음이다.

예) ㄱᄃ [강거] 강

11) 비음: 모든 비음은 후음을 동반한다.

① ㅁ '마'는 두 입술사이에서 나는 비음이다.

예) ㅁᄃᄃ [마하떠] 두께

② ㄴ '나'는 치조음인 비음이다. 예) ㄴᄃᄃ [나야-] 뱀

③ ㄴᄃ '나(무-르더져 나안너)'는 구개음인 비음이다.

예) ㄴᄃᄃ [나여] 빛

12) 마찰음

① ㅍ '파(Fa)'는 목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순치음의 마찰음이다. 영어의 'F' 를 발음하기 위해서 생겨났다. 여러 글자가 있다( ㅍᄃ, ㅍᄃᄃ ) 예) ㅍᄃᄃᄃ [파-머씨] 약국

② ㅍᄃ '싸'는 목에서 소리 내지 않는 입술 치찰음 (쉬쉬 소리 내는)이다.

예) ㅍᄃᄃᄃᄃᄃ [싸머널러야-] 나비, ㅍᄃᄃᄃᄃ [싸-머여] 평화

③ ㅍᄃᄃ '샤'는 목에서 소리 내지 않는 연구개 치찰음이다.

예) ㅍᄃᄃᄃᄃ [샤브더] 소리

13) 모음 같은 자음들

① ㅍᄃᄃ '와(Va)'는 후음인 입술로 내는 연속음이다. 영어의 'v' 나 'w'와 비슷하다. 예) ㅍᄃᄃᄃᄃᄃ [완두라-] 원숭이

② ㅍᄃᄃᄃ '야'는 후음인 구개연속음이다. 예) ㅍᄃᄃᄃᄃᄃ [야뚜러] 열쇠

위의 설명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.

		입술 음	치음	치조 음	구개 음	연구 개	성문 음
폐쇄음	비후음	ㅍ (Pa)	ㅍ따		ㅍ타		ㅍ까
	후음	ㅂ (Ba)	ㅂ다		ㅂ타		ㅂ까
파찰음	비후음					ㅊ	
	후음					ㅈ	
비-후- 폐쇄음		ㅃ (Ppa)	ㅃ은 다		ㅃ은 타		ㅃ은 까
비음	(후음)	ㅁ (Ma)		ㅁ나		ㅁ냐	
진동음				ㄹ (Ra)			
측음				ㄴ (La)			
마찰음		ㅍ (Fa)	ㅍ싸			ㅍ샤	ㅍ하
준모음		ㅅ (Va)				ㅅ야	

#### 14) 자음과 함께 사용되는 글자들

- ① 'ㅇ' - 양쌍- ㅇㅇ' 는 붙여지는 자음의 고유 모음소리를 억제한다. 따라서 '이여'로 발음된다. 하지만,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'ㅇ 양쌍-ㅇㅇ'가 붙은 단어의 받침음을 앞 단어에 붙이고 약하게 발음한다. 그러면 자동으로 자음의 고유 모음 소리를 억제한다.

예) රාජ්‍යය [රැ-지여여] 나라, සත්‍යය [සැ-띠여여] 진리

② 'ඊ - ර/ඞ-ඞඞ' 는 자음 위에 붙어서 붙은 단어 앞에서 'ඊර'라고 발음된다. 요즘은 이 자음 대신에 'ඊර'를 사용한다. 예) මාගීය [ම-රැ-거여] = මාඊය

③ '□a 개터여 ගැටය (쓰가떠 앨러벨러 ස්ගන ඇලපිලේ)' 는 붙은 자음의 고유 모음소리를 억제하면서 그 자음을 받침음이 되게 하면서 '으'로 발음된다.

예) ගෘහය [ග-රු-허여] 집

④ '□ 고클'서여 කොරංයය' 는 붙은 자음의 고유 모음소리를 억제하면서 그 자음을 받침음이 되게한 후 'r(R)'발음이 붙는다. 예) ක්‍රියා [க் r/야-] 행동

⑤ ' r □ 싣'너'ക്ക සඳ'ඳ'ක' 는 세가지로 사용된다.

a. 자음에 앞에 붙고, 모두 'ඞ'의 매우 짧은 소리로 발음된다. 예) කඳු [간두] 산

b. 'ඞ' 앞에 붙을 경우 'ඳ' 드'로 발음된다. 예) මඞ මාද්ව

c. 'ඞ' 타-, ඞ' ඳ-, ඞ' 다-'와 같이 장음들 앞에 붙을 경우 각 음의 받침음이 앞 단어에 붙게 된다. 요즘은 'ඳ' 알 다안'를 대신 사용한다.

예) කඞ [간터], මඞ [만터], ශුඞ [술터] 거룩한= ශුඳ'ඞ

15) 'ඞ' 루, ඞ' 루-'는 모음과 자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.

'ᄃ 루 = 'ᄃ' + 'ㄹ' 이고, 'ᄃᆫ 루 = 'ᄃ' + ' ㄹ' 이다. 요즘은 'ᄃ 루'와 'ᄃ 루-'로 대체되어서 많이 쓰인다.

예) ᄃᄃᄃᆫ [뽕루완] 할 수 있는 = ᄃᄃᄃᆫ